

## 2008 PR Trend Briefing – by THE LAB h

2007 美 PR협회(PRS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통해 본 PR의 새로운 Trend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 9시 30분, 서울 파이낸스 센터)

- PR의 새로운 Global Trend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 전세계 PR분야의 리더들은 과연 Web 2.0이 PR산업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PR실무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해 나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점이 궁금하시다면, THE LAB h 2008 PR Trend Briefing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THE LAB h(THELABh.com)는 美 PR협회(prsa.org)가 2007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최하는 2007 PRSA International Conference (prsa.org/conf2007)에 참가하여 글로벌 PR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PR협회 연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의 PR 지식포럼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모여든 PR업계의 리더들이 새로운 트렌드와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Web 2.0으로 대변되는 뉴미디어가 PR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세션이 준비될 예정으로, THE LAB h에서는 한국의 PR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8개의 세션 (총 10시간)에 참가하여 해외 PR업계 리더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참가 세션 중에는 The New Influencers의 저자인 Paul Gillin이 진행하는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he New Influencers>, Makovsky & Company의 <Social Media and Crisis Management>, Adfero Group의 <Strategic Blogging for Successful Marketing>, 위기관리 분야 최고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James Lukaszewski의 <How to develop the Mind of Strategist>, Ogilvy PR의 John Bell 사장이 발표하는 <360 Degree Digital Influence>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11월 29일 목요일 저녁 서울 파이낸스 센터 21층에서 진행될 90분간의 브리핑에서는 PR의 미래 트렌드를 나타내는 세션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핵심만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활발한 질의 응답 및 토론을 위해서 총 40분만을 모십니다. 참석자 분들에게는 당일 브리핑자료를 세션 후 제공합니다.

**브리핑 세션 기본 사항 및 참가신청 방법**

언제: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 9시 30분 (질의응답 시간 포함)

어디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 21층 컨퍼런스 룸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신문사 빌딩 옆에 위치, 지하철 광화문역, 시청역)

발표자: 김 호, 더랩에이치(THELABh.com) 대표 코치

신청방법:

먼저 [GOthelabh@gmail.com](mailto:GOthelabh@gmail.com)으로 참가신청을 해 주십시오. 참가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이름 + 소속(및 직책) + 전화연락처만 적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THE LAB h에서는 선착순 40분께 참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참가확인을 받으신 분께서는 답변을 받으신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참가비 75,000원 (교재포함 가격)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최종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48시간 내에 입금이 되지 않고, 신청 대기자 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기자분, 41번째 신청자부터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입금하실 곳: 외환은행 630-005669-471 (예금주 - 주식회사 김호더래버러토리)

THE LAB h (THELABh.com)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PR)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체 CEO 및 임원, PR 실무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샵, 트레이닝, 개인 코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단일 PR 컨설팅사로써는 세계 최대인 에델만(Edelman)의 한국 지사장을 지낸 김호 대표(hohkim.com)가 2007년 6월 설립했습니다. 김호 대표는 위기관리 전문 컨설턴트로서, 정부,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CEO 및 최고위 리더를 대상으로 미디어 코칭, 위기관리 시뮬레이션 워크샵, 메시징 워크샵 특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겸임교수(2005-2006)로 이슈 및 위기관리 과목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